당곡 미술관

관악구 봉천동 당곡길 25, 당곡프라자는 2009년 골조만 올라가고 공사중단이 된 상태 그대로 멈춰있다. 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어지던 건물은 오히려 흉물이 되어 주민들을 괴롭혔다. 과거에 멈춰버린 공간을 미술관으로 탈바꿈하고자 하였다. 당곡미술관은 다소 비효율적인 공간으로 구성된다. 이미 있는 골조는 다시 터서 네거티브 공간을 만들고 계단실과 엘리베이터로 내려올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굳이 외벽을 따라 경사로가 자리 잡는다. 이는 미술관을 경험하는 데에 있어 전시 관람만이 경험의 전부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담긴 결과물이다. 경사로를 따라 건물의 골짜기를 걷는 여정, 뚫린 공간 사이로 쏟아지는 햇빛을 맞는 일, 친구와 걸으며 나눈 수다, 이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공간을 경험하는 과정으로서 기억되었으면 한다.